

2015. 7. 3.(금) 조간(온라인은 7. 2. 14:00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식 042 - 869 - 0960 / 강동기 0967

서울(분원): 대외협력실 이승혜 02 - 3299 - 6185

문의: 유석중 생명의료융합기술연구실장(042-869-1054)

강효진 선임연구원(042-869-1049)

배포번호 : 2015-20

배포일자 : 2015.07.02.(목)

매수 : 보도자료 2매

배포처 : 대외협력실

빅데이터 기술로 효과적인 뇌 연구 돕는다

- KISTI, 한국뇌연구원과 빅데이터 기반 뇌 연구 협업에 나서 -

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과 한국뇌연구원(이하 KBRI, 원장 서유현)이 7월 2일 오후 2시 KISTI 대전 본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뇌 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KBRI의 최신 뇌 분석 장비에서 생산되는 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KISTI의 컴퓨팅 인프라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뇌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.
 - 앞으로 국내 뇌 연구에서 생산되는 뇌 빅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뇌 기능 연구 및 뇌 질병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최근 뇌 연구 분야는 뇌 영상 이미지 데이터, 뇌 유전체 데이터 등 뇌 분석 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.
 - 이번 협약은 대용량 뇌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과 계산량의 방대함,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의 어려움 등 그동안 나타났던 국내 뇌 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.

- KBRI 서유헌 원장은 “컴퓨팅 기반의 연구를 통해 뇌 질환 치료 및 진단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 연구 등 다양한 뇌 연구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밝혔다.

- KISTI 한선화 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뇌 빅데이터 분석 협력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히며 “뇌과학 분야의 데이터 저장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자들이 실험설계와 분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뇌과학 연구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(끝)